

성 명 : 권 혁 순

생년월일 : 1967년 2월 28일

현 직 : 청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



학 력

1985년 3월 - 1989년 2월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 이학사
1989년 3월 - 1991년 2월 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육학석사
1996년 3월 - 2000년 2월 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육학박사

경 력

1991년 6월 - 1996년 2월 서울 광희중학교 과학교사
2000년 3월 - 2002년 2월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방문연구원
2002년 3월 - 현재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2010년 9월 - 2012년 2월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처장
2015년 8월 - 2016년 2월 청주교육대학교 학술문화원장

학회관련 활동

<한국과학교육학회>

1989년 6월 - 현재 정회원
2004년 3월 - 2017년 2월 평의원
2007년 3월 - 2009년 2월 12대 기획간사, 학술행사위원회 간사
2011년 3월 - 2015년 2월 14대, 15대 편집위원회 위원
2012년 3월 - 2013년 2월 14대 기획간사, 학술행사위원회 간사
2012년 11월 - 2013년 1월 15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015년 11월 - 2016년 1월 17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017년 3월 - 2019년 2월 17대 학술행사위원회 위원
2019년 3월 - 현재 18대 이사, 초등과학교사분과 위원장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2012년 3월 - 현재 이사
2012년 3월 - 현재 홍보위원장, 초등과학영재교육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현)
2012년 3월 - 2015년 2월 편집위원회 위원

<대한화학회>

2004년 1월 - 2006년 12월 화학교육분과 총무간사
2016년 1월 - 현재 화학교육분과 초등교육연구부장
2018년 1월 - 현재 (사단법인) 대한화학회 등기이사

◁ 이런 학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

반세기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한국과학교육학회는 그동안 여러 회원들의 연구 및 개발 활동을 통하여 과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 해 왔습니다. 이제 그 자랑스러운 선진 연구자들의 학술 활동 문화와 전통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1. 과학교육 학술 발전에 기여한 학회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매년 2회 개최되는 정기 학술대회와 6회 발간되는 학회지를 통하여 회원들이 양질의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 학회의 학술대회 규모와 발표 논문의 수준은 국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더 많은 회원들과 외국의 연구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것을 얻고 즐길 수 있도록 원격 발표 등 학술대회의 형식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또한 학술지의 발간 및 배포 시스템을 점검하고 영문학술지의 국제등재지화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과학교육 현장 및 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초중등학교 과학교육, 학교 밖 과학교육, 과학교사 교육과 대학 과학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장에서 회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연구하고 그 성과가 공유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융합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인접 학문과의 경계를 넘어선 과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련 기관과 연대하여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3. 회원들의 참여와 소통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연구 관심 영역이 유사한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상시 학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분과 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분과 위원장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하며, 학술대회와 연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회원의 친목 도모와 학술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초연결 시대에 걸맞게 SNS와 온라인 매체를 통한 학회 홍보와 회원 상호간 소통이 활성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니다. 특별히 원로 연구자로부터 신진 연구자와 학문 후속세대에 이르기까지 부담 없이 참여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한국 과학교육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창립 50주년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동안 많은 회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꾸준히 연구 활동을 함으로써 한국 과학교육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지난 40여년의 세월 동안 우리 학회가 어떻게 태동하여 성장하고 발전해 왔으며, 한국의 근현대 과학교육의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했는가와 관련된 자료를 관련 당사자들이 살아계신 동안 조사 및 수집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바람직한 과학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학회의 가용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옛것을 살펴보고 새 것을 알아 가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연구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